

MEDIAART & CULTURE

백남준, TV, 인공위성공연





TV 부처 (1974)



TV 부처 (1974)

- 자신의 배경적 **메타포**, 자신의 **분신**
- 동양과 서양의 소통
- 선사상과 과학기술의 만남





폐쇄회로

- ◆ 피드백 메커니즘을 이용
- ◆ 거울 구조와 같이 수상기가 피사체를 반영하는 원리
- ◆ 폐쇄회로 설치 작업은 **나르시시즘** 비디오 미학을 탄생케 함
- ◆ **참여 문제**로 귀결





비디오 설치

◆ 장치된 TV

- 내부 회로를 변경시켜 특수한 시각효과를 만듦
- 제한적, 추상적, 우연의 이미지
- 최초의 참여 TV

◆ 비디오 테이프

- 캠코더와 신디사이저의 등장으로 현란한 시청각 효과
- 무한, 복합, 동적인 이미지
- 중첩과 분리 효과 → 모방적 재생산

◆ 폐쇄회로

- 카메라로 찍힌 현장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피드백 → 거울효과
- 정적, 선사상 반영
- 나르시시즘 미학





위성중계 공연

인공위성을 통해 생방송을 한다?

실시간 콘텐츠

실시간 소통

상호 소통적 참여 TV의 이상적 모델





굿모닝 미스터 오웰 (*Good Morning Mr. Orwell*, 1984)

-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TV를 상호 소통적 예술매체로
- 뉴욕과 파리에서의 실시간 공연들을 동시에 전하는 퍼포먼스
- Merce Cunningham, 로리 앤더슨과 피터 가브리엘, Allen Ginsberg, Oingo Boingo, Bien Beuys



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0oUdI-KFCyU>



굿모닝 미스터 오웰 (*Good Morning Mr. Orwell*, 1984)

- 전 지구적 차원의 참여 TV

- 예술을 수직적인 소통이 아닌 **수평적 소통**으로 확장
- 예술은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공유할 수 있다

상호소통

비디오의 통신성 대신 동시성이 강조





상호소통적 통합

- ◆ 예술과 기술의 통합
- ◆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통합: 예술의 깊이보다는 확장
 - ◆ 예술과 삶의 통합



결론

- ◇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 작업은 영상이미지와 TV 수상기의 별개지만 상호 연관되는 **구성적이고 조각적**인 특성을 보여줌.
- ◇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해프닝의 연장선상에서 TV를 상호 소통 매체로 회복시킨 **참여TV** 이자 관객의 참여를 권장하고 원활한 **상호소통**을 이룬 **참여예술**





결론

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다.
그래서 전자와 인공을 결합시키면 모든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다.
... 따라서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,
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이다.
나는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적이고 물질적인 조건,
즉 수평적 수직적 탐구에 관심을 갖는다.

